



ESG& 글로벌 유동성 담당 오광영 oh.gwang-young@shinyoung.com

신영ESG

AI 발 순풍이 미국의 ESG 투자를 이끌어... 미국 14분기 만에 ESG 펀드 순유입 전환

사상 최대 규모에 근접한 글로벌 ESG 펀드 시장

모닝스타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글로벌 ESG 펀드(모닝스타 분류 기준: Global Sustainable Fund)로의 분기 자금 흐름은 37억 달러의 순유입을 보이며 2분기 연속 순유입을 기록함.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럽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35억 달러가 순유출되며 2분기 연속 순유입 됨. 또한 미국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30억 달러 순유입되며 14분기 연속 순유출 끝내며 성장세로 전환됨. 기타 지역의 ESG 펀드로의 분기 자금 흐름은 약 28억 달러가 순유출되며 4분기 연속 순유출을 기록함.

글로벌 ESG 펀드 규모는 2026년 2분기말 기준 3조 7,340억 달러로 글로벌 자산 시장의 반등과 함께 6.3% 성장하여 종전 최고치인 2025년 4분기 규모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럽 지역의 ESG 펀드 규모는 직전 분기말 대비 5.5% 증가한 3조 1,320억 달러로 전체의 84%를 차지함. 미국 지역의 ESG 펀드 규모는 직전 분기말 대비 13.5% 증가한 3,980억 달러로 전체의 11%를 차지함. 기타 지역의 경우 직전 분기말 대비 4.4% 증가한 2,040억 달러로 전체의 6%를 차지함.

새로이 재편되어 가는 ESG 시장

현재 글로벌 ESG 시장은 상품 구조와 투자대상이 새로이 재편되고 있음. 2026년 상반기에는 자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되었지만 회복의 내용은 과거 ESG 붐 때와는 다르다는 판단임. ESG 투자의 주요 자산 유형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ESG 투자 전략은 전통적인 Active에서 Passive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고 세부적으로는 Broad ESG전략에서 Targeted ESG전략으로 이동함. 필자는 다음 3가지 근거로 인해 글로벌 ESG 시장의 성장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함. ① 자금 흐름의 바닥 통과와 자산 규모의 구조적 확대, ② 투자 저변의 질적 변화와 확대, ③ 제도-인프라 등의 신규 도입과 보완으로 신뢰도 상승 등. 한편 Green-only 모델의 한계가 나타나 전환(Transitio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 금융의 영역으로 편입 가능성 존재함. 국내 ESG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 비해 다소 둔화되어 있으나 향후 다양한 ESG 제도의 도입 및 시행 등으로 인해 성장 모멘텀은 강화되고 있음. 이에 투자자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임.

Contents

I. 2026년 2분기 글로벌 ESG 펀드 시장 동향	3
1.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 2분기 연속 분기 기준 순유입 기록	3
2. ESG 펀드 Asset: 3.7조 달러로 6.3% 증가하며 회복세 보여	10
3. 신규 ESG 펀드 출시: 32개 출시되며 회복세를 보임	12
II. 새로이 재편되어 가는 ESG 시장	14
1. 실물경제의 투자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ESG 시장	14
2.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국내 ESG 펀드 시장	16
3. 기준을 달리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	17

분석의 기본가정

- 미국의 ESG를 둘러싼 정치적 반발 지속
- 한국을 비롯해 주요국의 ESG 관련 제도 도입 및 시행 지속

AI 발 순풍이 미국의 ESG 투자를 이끌어... 미국 14분기 만에 ESG 펀드 순유입 전환

I. 2026년 2분기 글로벌 ESG 펀드 시장 동향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 2분기 연속 분기 기준 순유입 기록

2026년 2분기 기준 글로벌 ESG 펀드 시장은 2분기 연속 순유입을 기록하며 일부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하반기 ESG 시장을 둘러싼 여러 도전과 反 ESG 기조를 보이는 공화당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영향 등으로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이 2분기 연속 대규모 순유출을 보였던 글로벌 ESG(책임투자·지속가능성 투자) 펀드는 2026년 들어 AI 붐에 따른 청정에너지와 전력 인프라 투자 활성화 등으로 일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2분기 글로벌
ESG(책임투자) 펀드
로의 자금 흐름은
37억 달러 순유입 기록

최근 발표된 모닝스타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기준 ESG 펀드(모닝스타 분류 기준: Global Sustainable Fund)로의 분기 자금 흐름은 지난 분기 8억 달러 순유입에서 소폭 증가한 약 37억 달러의 순유입을 보이며 2분기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과 제26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6)를 전후로 ESG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 증가 속에 ESG 펀드는 2021년 한때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했었다. 2021년 연간 6,450억 달러가 유입되며 사상 최대 호황을 보였던 ESG 펀드 시장은 2022년에는 ESG에 대한 여러 도전과 글로벌 자산 시장의 부진 여파 등으로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매분기 마다 순유입 규모가 감소세를 보여 연간 순유입 규모는 1,610억 달러에 그치며 직전 년도 대비 75% 감소했다. 이후 2023년에도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의 고조와 함께 높은 금리 레벨과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등이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ESG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감소해 연간 순유입 규모는 630억 달러로 급감했다. 지난 2024년에는 불확실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전망, AI 붐, 지정학적 위험 지속 등 복합적인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연간 ESG 펀드로의 자금 순유입 규모는 38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2021년을 정점으로 2024년까지 매년 순유입 규모가 감소했다.

이처럼 감소세를 보여왔던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2025년 들어 결국 연간 840억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이는 모닝스타가 2018년부터 해당 부문을 분석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연간 기준 순유출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세부 지역별로는 유럽과 기타 지역에서도 처음으로 연간 기준 순유출이 발생했으며, 미국에서는 세 번째로 연간 기준 순유출이 발생했다. 또한 스타일별로 살펴보면 액티브와 패시브 전략의 ESG 펀드 모두가 연간 기준 순유출을 기록했다.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는 사상 최대 규모인 490억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으며, 특히 패시브 전략의 ESG 펀드는 처음으로 연간 기준 순유출(약 350억 달러)을 기록했다.

2025년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에는 불확실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 인플레이션과 금리 전망, 인공지능 붐, 지정학적 위험 지속 등 복합적인 거시 경제적 속에서 자금 흐름이 부진했으며 2분기에는 증시의 상승과 함께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자금 흐름이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3분기 이후로는 특정 영국의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기존의 ESG 펀드에서 ESG 운용 위탁 계좌(bespoke ESG mandates account)로 자금을 옮기기로 결정하면서 영국 소재 운용사의 펀드에서 대규모 환매가 출회된 데다가 이외에도 미국, 기타 지역 등의 ESG 펀드에서도 자금이 유출되면서 대규모 순유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ESG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 약화 원인
→ 어려운 거시 환경 + ESG를 둘러싼 정치적 부담 가중 + 그린 워싱 우려 + 일부 ESG 테마 유형의 부진한 성과 등의 영향으로 투자자들이 ESG 투자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

이처럼 2025년 글로벌 ESG 펀드는 처음으로 연간 기준 순유출을 기록했으며 4분기 중 3분기 동안이나 순유출을 기록하는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25년 들어 연간 기준, 반기 기준 모두 일반적인 펀드를 밀도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여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크게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약화된 투자 심리는 부분적으로 높은 이자율과 인플레이션 지속,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지속, 세계 일부 지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등 어려운 거시 환경에 기인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지정학적 복잡성이 지속되고 글로벌 무역 갈등 고조 등 리스크 요인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 ESG 정책 조치로 인해 기업과 자산 운용사들이 ESG 이니셔티브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는 관련 투자 규모를 축소할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와 동시에 특히 2025년에는 ESG 시장을 선도하는 유럽에서 지속 가능성의 우선 순위가 경제 성장, 경쟁력, 지정학적 리스크 및 국방 등에 비해 낮아진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EU 옴니버스 패키지(규제 간소화 종합 패키지),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DR) 개정 검토 등 ESG 관련 규제 변화 등의 규제 불확실성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일부 ESG 투자 전략의 성과 우려 또한 지속가능성 전략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저해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에 대한 비중 축소와 기술 및 기타 성장 부문에 대한 비중 확대를 추구했던 글로벌 ESG 펀드의 투자 전략이 저조한 성과를 보인 바 있다. 2025년에는 방위산업에 대해 배제 전략을 취하고 있는 전통적인 ESG 펀드들이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으로 방위산업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기록하자 방위산업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방법을 가져가야 한다는 등의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ESG 투자에 대해 더욱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26년 들어 2분기 연속
순유입을 보이면서 회복세
를 이어가 → 2026년 2
분기 유럽 지역은 2분기 연
속 순유입 기록, 특히 미국
지역은 14분기 연속 순유
출 이후 순유입으로 전환됨

모닝스타에서 ESG 펀드 시장을 분석하기 시작한 2018년 이래 역대 가장 부진한 2025년을 보내고 2026년 들어 유럽과 미국 투자자들이 ESG 펀드로 다시 돌아오면서 순유입을 기록 중이다. 글로벌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2026년 1분기에는 8억 달러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2분기에는 약 37억 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2025년의 부진 이후 2026년 들어 소규모 이지만 2분기 연속 순유입을 보이면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6년 2분기 유럽 지역은 1분기 대비 순유입 규모가 감소했지만 2분기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특히 미국 지역은 14분기 연속 순유출 이후 순유입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캐나다, 일본, 호주/뉴질랜드,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순유출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소폭의 글로벌 증가는 지역별 엇갈린 자금 흐름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회복세가 다른 지역의 지속적인 약세를 상쇄해 순유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순유입 규모 등을 통해 ESG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를 판단해볼 때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2020년 이후 이어진 선호도 약화 속에서 벗어나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ESG를 둘러싼 정치적 압박이 최고 수위인 미국에서 14분기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미국 지역에서 긍정적인 영역으로의 복귀는 고무적이지만, 전반적인 환경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ESG 투자에 대한 정치적 역풍 심화, 변화하는 규제, 들쭉날쭉한 투자 성과, 그리고 고조된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은 글로벌 ESG 투자 심리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규제 명확화로 인해서 일부 영역에서는 다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지난 해 12월 EU집행위원회가 밝힌 SFDR 개정안에 따르면 일부 무기 및 방위 산업에 대해 ESG 투자의 길이 열렸다. EU 집행위원회는 EU SFDR은 주요 국제 협정에 따라 금지된 무기를 제외하고는 방위 부문 투자와 양립 가능하다고 밝히며 ESG 투자에서 배제되는 무기의 정의를 ‘논란이 많은 무기(controversial weapons)’에서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prohibited weapons)’로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ESG 투자도 다수의 국가가 가입한 조약에서 금지하는 무기를 제외한 무기 및 방위 산업에 대해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때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재생에너지 관련 업종은 AI 관련 전력 수요 대응과 관련하여 높은 관심 속에 반등에 성공하여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점도 향후 ESG 투자 분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35억 달러가
순유입 되며 2분기 연속
순유입을 기록함

2026년 2분기 기준 지역별로 ESG 펀드로의 자금 유출입을 살펴보면, 유럽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약 35억 달러가 순유입 되며 2분기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이는 82억 달러가 순유입 되며 2분기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되었던 2026년 1분기에 비해서는 절반 이상 감소했지만 2분기 연속 순유입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인 것이다.

지난 해 유럽의 ESG 펀드는 한 해 동안 620억 달러 순유출을 기록하며 모닝스타가 2018년부터 해당 부문을 분석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연간 기준 순유출을 기록한 바 있다. 이처럼 대규모 순유출을 기록한 이유는 영국의 특정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펀드에서 맞춤형 운용 계좌로 이전 결정을 하면서 영국 소재 스코티쉬 위도우스(Scottish Widows), 블랙록(BlackRock), 노던 트러스트(Northern Trust) 등이 운용하는 펀드에서 대규모 환매가 출회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다만 이 자금은 ESG 투자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 모닝스타가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 펀드에서 제외되었을 뿐이며 맞춤형 운용 계좌를 통해 계속적으로 ESG 투자를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채권형 ESG 펀드는 순유입을 기록했으나 주식형 ESG 펀드는 순유출을 기록함

한편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채권형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144억 달러가 순유입되며 14분기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반면 주식형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이번 분기에는 93억 달러가 순유출 되었다. 주식형은 ESG 펀드는 2025년 4분기 블랙록 펀드의 대규모 환매 등으로 539억 달러가 순유출을 기록한 이후 지난 분기 들어 소폭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으나 다시 1분기 만에 순유출로 전환된 것이다. 이처럼 투자자들이 주식형 펀드보다 채권형 펀드를 선호하는 것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유럽 펀드 시장 전반에 걸쳐 채권형 펀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전체 주식형 펀드 시장은 순유입이 지속되었는데, 대부분 미국, 글로벌, 기술주에 대한 폭넓은 투자를 제공하는 패시브 펀드로 집중되어 이에 비교해도 주식형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가 순유출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패시브 전략의 ESG펀드로의 자금 흐름이 대규모 순유입을 보인 영향으로 순유입 기록함

스타일별로 살펴보면 2026년 2분기 순유입은 전적으로 패시브 전략의 ESG 펀드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기 패시브 전략의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약 114억 달러 순유입을 기록하며 2분기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반면 2026년 2분기 액티브 전략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78억 달러가 순유출 되며 4분기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 이는 비용 효율성 및 베타와 유사한 노출에 초점을 맞춘 투자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2년 4분기 이후 14분기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던 미국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이번 분기 들어 30억 달러 순유입 되며 성장세로 돌아섰음

미국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2021년 1분기에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으며 특히 2022년 4분기 이후 2026년 1분기까지 14분기 연속 순유출을 기록하는 등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26년 2분기 들어 미국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30억 달러 순유입을 기록하며 성장세로 돌아섰다.

이에 최근 몇 년간의 미국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2023년 3분기 이후 증가세를 보였던 순유출 규모는 2024년 2분기 들어 직전 분기 대비 순유출 규모가 48% 감소하고 3분기에도 57% 감소하며 미국 지역에서도 투자 심리가 다소 개선되는 듯했다. 하지만 2024년 4분기 미국 대선을 전후해서 다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며 순유출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이 추세는 2025년 1분기까지 이어졌다가 2분기 이후 4분기까지 순유출 규모는 다시 점점 감소했다. 2026년 들어서 1분기에는 43억 달러가 순유

출 되며 소폭 순유출 규모가 증가하는 듯 했으나 2분기 들어 AI 및 데이터 센터 이슈로 에너지 전환 인프라 및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의 영향으로 3년반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되었다.

연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3년에는 한 해 동안 총 133억 달러가 순유출 되며 연간 기준 처음으로 순유출을 기록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2024년과 2025년에도 매분기 순유출을 보이며 연간 기준으로는 각각 200억, 210억 달러 순유출 되며 역대 최대 순유출 규모를 매년 경신하며 3년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 2026년 들어서는 2분기의 순유입에도 불구하고 1분기 순유출을 기록한 영향으로 상반기 기준 약 13억 달러 순유출을 기록 중이다.

한편, 미국 지역의 전체 펀드 시장의 순유입 규모는 전분기 3,370억 달러에서 3,56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이에 유기적 성장률도 지난 분기 대비 소폭 높아진 +1.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6년 2분기 미국 지역의 ESG 펀드의 유기적 성장률은 +0.8%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미국에서 ESG 투자가 부진했던 이유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심화된 anti-ESG에 기인함

미국에서 나타난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 후퇴는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심화된 anti-ESG에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 반대 입장과 DEI를 겨냥한 행정명령과 그리고 ESG 이니셔티브를 폐지하거나 약화시키기 위한 여러 反 ESG 정책 조치는 기업에 새로운 법적 위험을 초래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많은 미국 자산운용사들은 ESG 관련 공약을 축소하고 ESG 펀드 규제에 따른 자격 증명과 ESG 펀드 등을 홍보하는 데 더욱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투자자들은 AI 및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 증가에 따른 에너지 전환 인프라 및 관련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에 이와 관련된 녹색 인프라 펀드 등에 관심이 증가해 많은 자금이 순유입 된 것으로 나타나

하지만 최근 투자자들은 AI 및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 증가에 따른 에너지 전환 인프라 및 관련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에 이와 관련된 녹색 인프라 펀드 등에 관심이 증가해 많은 자금이 순유입 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Smart Grid Infrastructure 펀드(GRID)는 전력망, 송전망 장비 및 에너지 관리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AI와 데이터 센터의 증가로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투자자들이 관심이 높아져 2026년 2분기에만 31억 달러의 자금이 순유입 되며 4분기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2026년 2분기 미국 지역의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을 자산군별로 살펴보면 주식형과 채권형 ESG 펀드로 각각 15억 달러씩 순유입 보인 영향으로 순유입 기록함

2026년 2분기 미국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을 자산별로 살펴보면 주식형과 채권형에 각각 15억 달러씩 순유입 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형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4분기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주식형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2022년 4분기 이후 3년반 만에 순유입을 기록했다.

또한 미국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을 스타일별로 살펴보면 지난 분기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인 73억 달러의 순유출을 보이며 12분기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던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는 이번 분기에도 36억 달러 순유출 되며 약세를 보였다. 반면 패시브 전략의 ESG 펀드는 2026년 2분기 65억 달러가 순유입 되며 3분기 연속 순유입을 기록해 상반된 자금 흐름을 보였다.

미국 지역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는 2023년 1분기를 제외하고 2022년 1분기 이후 매 분기마다 순유출 기록 → 대표적인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 운용사인 Parnassus 의 PRBLX 등이 순유출을 주도함

특히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는 2023년 1분기를 제외하고 2022년 1분기 이후 매 분기마다 순유출을 기록 중이다. 2024년 평균 40억 달러 내외의 순유출을 보였으며 2025년에는 이보다 증가한 50억 달러 이상이 매분기 순유출 되고 있다. 2026년 들어서는 순유출 규모가 소폭 더 증가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순유출을 보인 이유는 대표적인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 운용사인 Parnassus 운용사의 Parnassus Core Equity Fund(PRBLX)가 2026년 2분기에도 순유출 상위 펀드에 오르면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액티브 전략의 대표적인 ESG 펀드로 알려졌던 Parnassus Core Equity Fund (PRBLX)가 2022년 초 이후 190억 달러 가까이 순유출 되며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 순유출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Parnassus 운용의 펀드에서 대규모 순유출이 발생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는 CIT(Collective Investment Trust)의 출시와 그에 따른 투자자의 이동에 따라 모닝스타 집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오랫동안 순유출이 이어진 영향으로 Parnassus Core Equity Fund (PRBLX)는 미국 내 최대 순자산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ESG 펀드 타이틀을 Vanguard FTSE Social Index Fund(VFTAX)에 내주었다.

연간 기준으로 액티브 전략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2025년 들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20억 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반면 패시브 전략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10억 달러 순유입 되며 2년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2026년 들어 상반기까지 패시브 전략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약 95억 달러 순유입 되었으며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약 110억 달러 가까이 순유출 을 기록 중이다. 참고로 2023년과 2024년에는 미국 지역에서는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와 패시브 전략의 ESG 펀드 모두 순유출을 기록했었다.

기타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28억 달러 순유출 되며 4분기 연속 순유출을 기록함

일본, 호주/뉴질랜드, 캐나다, 아시아(일본 제외) 등으로 구성된 기타 지역의 ESG 펀드로의 2026년 2분기 자금 흐름은 약 28억 달러가 순유출 되며 4분기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2026년 2분기 2.4억 달러 순유출 되며 16분기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350억 달러 순유입을 기록한 일본 전체 펀드 시장으로 흐름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인 흐름이다. 세부 전략별로 살펴보면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는 약 3.2억 달러 순유출 되며 17분기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 또한, 패시브 전략의 ESG 펀드는 1분기 1.9억 달러 순유입 대비 절반 수준의 순유입을 보이며 2분기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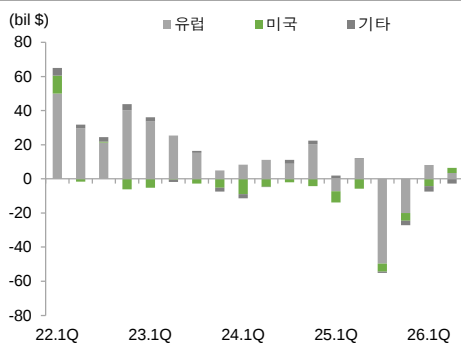
직전 분기에 18억 달러가 순유출 되었던 아시아(일본 제외)지역은 이번 분기 동안 19억 달러가 순유출 되며 4분기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 이는 특히 대만, 한국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이 순유출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대만지역은 약 16억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다기 때문이다. 대만 지역의 자금 유출은 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ESG 펀드인 Cathay Sustainability High Dividend ETF에서 13억 달러 순유출 되었기 때문이다. 이 펀드는 4분기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으며, 매 분기 환매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 분기 약 4.4억 달러의 순유입을 보였던 캐나다의 경우 약 4.8억 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스타일별로 살펴보면 패시브 전략의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5.3억 달러의 순유입을 보인 반면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10.1억 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자산 유형별로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모든 자산군 유형에서 순유출을 보였는데 특히 주식형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이 3.5억 달러 순유출 되며 가장 많은 순유출을 기록했다. 또한 채권형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1.27억 달러 순유출 되었는데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분기 기준 순유출을 기록했다.

기타 지역 중 지난 분기 3분기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던 호주/뉴질랜드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2026년 2분기엔 1.2억 달러 순유출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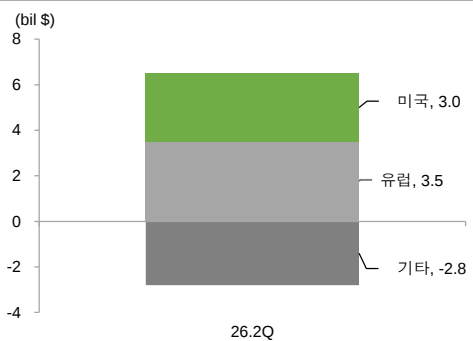
직전 분기에 0.3억 달러가 순유입 되며 3분기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던 호주/뉴질랜드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2026년 2분기에는 1.2억 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스타일 별로는 패시브 전략의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순유입을 보였으나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이 보다 큰 순유출을 보여 결국 순유출을 기록했다. 한편 자산별로는 주식형과 혼합형은 소폭이나마 순유입을 보였으나 채권형을 중심으로 기타 모든 세부 유형에서 순유출을 기록했다.

도표 1. 분기 별 글로벌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 추이



자료: 모닝스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 2026.2Q 기준 지역별 자금 흐름



자료: 모닝스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ESG 펀드 Asset: 3.7조 달러로 6.3% 증가하며 회복세 보여

2026년 2분기 기준
글로벌 ESG 펀드 규모는
3조 7,340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6.3% 증가함

2026년 2분기말 기준 ESG 펀드 전체 규모는 3조 7,340억 달러로 종전 최고치인 2025년 4분기 규모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분기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약세를 보였으나 이번 분기에는 글로벌 자산 시장의 반등과 함께 6.3%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026년 2분기 순유입 규모를 훌쩍 뛰어 넘는 2,300억 달러의 증가는 글로벌 증시 등 자산 시장의 반등 영향으로 전체 글로벌 펀드 시장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처럼 불확실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전망, AI 붐, 지정학적 긴장 지속, 글로벌 무역 분쟁, 주요국의 정치 환경 변화, ESG 규제 불확실성 증가 등 복합적인 환경 속에서도 글로벌 ESG 펀드 규모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에 2018년 말 약 6,000억 달러 수준이었던 글로벌 ESG 펀드 자산은 이후 6배 이상 증가하여 2026년 2분기말 3.7조 달러로 성장했다. 모닝스타에 따르면 이러한 성장은 지속가능성 문제(특히 기후변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와 더불어 유럽의 우호적인 규제, 개선된 ESG 데이터, 그리고 상품 혁신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유럽 지역의 ESG 펀드
규모는 3조 1,320억 달러
로 직전 분기 말보다
5.5% 증가하여 전체
ESG 펀드 규모의 84%를
차지함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6년 2분기말 유럽 지역의 ESG 펀드 규모는 직전 분기말 대비 5.5% 증가한 3조 1,320억 달러로 전체 글로벌 ESG 펀드 시장의 83.9%를 차지했다. M/S는 직전 분기 대비 0.7%p 감소했는데 이는 미국 지역의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이 이번 분기엔 14분기 만에 순유입을 보이고 미국 자산 시장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유럽 지역은 지난 4년간 꾸준히 유럽 지역의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지역의 ESG 펀드 규모는 증가해 2026년 2분기말 3.1조 달러로 2021년말 이후 자산이 4배 증가하는 등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특히 패시브 전략의 ESG 펀드는 수년간 시장 점유율이 증가해 2026년 2분기말 현재 33%로 30% 대에 안착했다. 이처럼 유럽 지역은 전통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높고 여러 분야에서 ESG 펀드 관련 선진 지역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ESG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별로 살펴보면 주식형 ESG 펀드가 유럽 지역의 전체 ESG 펀드 중 65% 차지하고 있으며, 채권형 ESG 펀드가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혼합형 ESG 펀드가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2분기말 기준 유럽 내 운용사별 현황을 살펴보면 세계 최대 운용사인 BlackRock이 강력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모든 개방형 뮤추얼 펀드 및 ETF 중 ESG 펀드 규모가 3,913억 수준으로 지난 분기에 이어 1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Lyxor를 품은 유럽 최대 운용사인 Amundi와 Credit Suisse를 인수한 UBS 순으로 나타났는데 ESG 펀드 규모는 각각 2,428억/2,151억 달러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미국 지역의 ESG 펀드
규모는 3,980억 달러로
직전 분기 말보다
약 13.5% 증가하여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해 전체
ESG 펀드 규모의 11%를
차지함

또한 2026년 2분기말 미국 지역 ESG 펀드 규모는 3,980억 달러로 전체의 10.7%를 차지했다. 이 규모는 직전 분기말 대비 13.5%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미국 지역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이 14분기 연속 순유출 이후 순유입으로 전환되고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 우려에서 일부 벗어나며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지난 해까지 미국에서는 ESG를 둘러싼 정치적 반발 심화 등으로 ESG 시장이 부정적 영향을 받아 미국 지역 ESG 펀드의 자금 흐름은 순유출이 지속되었지만 미국 증시의 호조 등으로 미국 지역의 ESG 펀드의 순자산 규모는 증가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올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anti-ESG 정책 등을 강화할 가능성이 존재해 ESG 투자 시장의 역성장에도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기존에는 ESG 펀드 시장에서 고금리가 청정 에너지 및 기타 친환경 산업 등 일부 영역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지난 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기후 변화 대응 및 DEI 정책에 대한 반대 행정명령과 같은 反ESG 정책 조치가 새로운 법적 위험을 야기했다. 이로 인해 미국 자산운용사들은 ESG 펀드에 대해 더욱 신중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여기에 글로벌 ESG 규제 강화 트렌드와 그린 워싱에 대한 우려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투자자들이 AI 및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 증가에 따른 에너지 전환 인프라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는데 이로 인해 자금 흐름의 개선과 관련 펀드의 성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자산별로 살펴보면 주식형 ESG 펀드가 미국 지역의 전체 ESG 펀드 중 85%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럽 지역보다 주식형 ESG 펀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뒤를 이어 채권형 ESG 펀드와 혼합형 ESG 펀드가 각각 14%, 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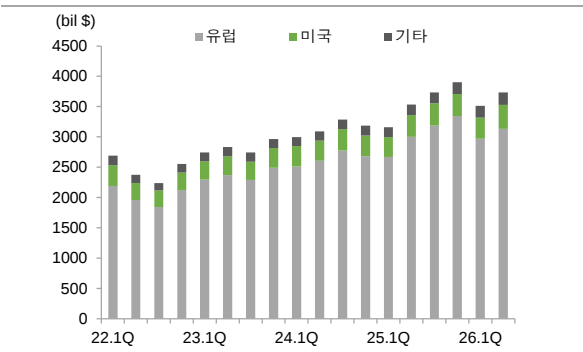
2026년 2분기말 기준 미국 내 운용사별 운용 규모 현황을 살펴보면 ETF 등 Passive 전략의 ESG 펀드에 강점이 있는 세계 최대 운용사인 BlackRock의 ESG 펀드 규모가 761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해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Vanguard(507억 달러), Morgan Stanley (incl Calvert, Eaton Vance 366억 달러), Parnassus(332억 달러), Dimensional(269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의 ESG 펀드
규모는 2,040억달러로
직전 분기말에 비해 6.4%
증가하여 전체 ESG 펀드
규모의 6%를 차지함

한편 일본, 호주/뉴질랜드, 캐나다, 아시아(일본 제외) 등을 비롯한 기타 지역의 ESG 펀드 규모는 직전 분기말 대비 6.4% 증가한 2,040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의 5.5% 수준을 차지했다. 기타 지역은 2021년 하반기 이후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2021년 한 해 동안 124% 성장했으나 이후 2022년 3분기까지는 역성장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22년 4분기부터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으며, 2023년에는 한 해 동안 6% 가까이 성장했으며, 2024년에는 연간 7.9% 성장했다. 2025년 들어서는 1분기 한때 역성장을 보이기도 했으나 2분기 이후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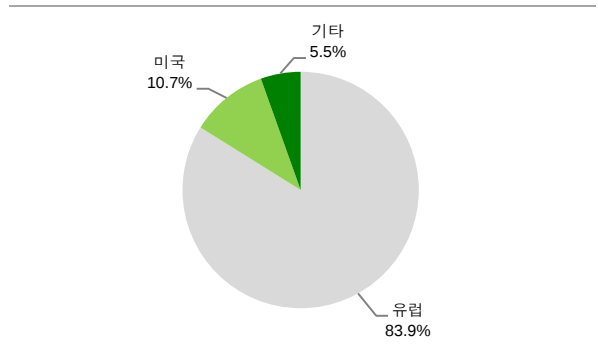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ESG 펀드 규모는 직전 분기말 대비 6.3% 증가한 980억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 제외 아시아 지역의 ESG 펀드 시장의 가장 큰 3대 시장은 중국, 대만, 한국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호주/ 뉴질랜드 지역의 ESG 펀드 규모는 402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7.2% 증가했다. 호주 ESG 펀드 시장은 일부 소수 운용사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상위 10개 운용사가 전체 ESG 펀드 자산의 약 7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 3분기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지역도 자산 시장의 상승 영향 등으로 직전 분기 대비 2.8% 증가해 434억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the Morningstar Canada TME Index가 6.7% 상승한 것에 비하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며 순유출을 보인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지역의 ESG 펀드 규모는 펀드로의 자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순유출을 보였음에도 증시의 강한 상승세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13% 증가한 225억 달러를 기록했다.

도표 3. 분기 별 글로벌 ESG 펀드 규모 추이



자료: 모닝스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4. 2026.2Q 기준 글로벌 ESG 펀드 지역별 비중



자료: 모닝스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신규 ESG 펀드 출시: 32개 출시되며 회복세를 보임

2026년 2분기 기준 글로벌 ESG 펀드 신규 출시 건수는 32개로 부진이 지속되었으며,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부진을 보임

2026년 2분기에는 32개의 ESG 펀드가 새롭게 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분기 신규 펀드 개발 활동이 크게 둔화되어 사상 최저 기록을 경신했던 것에 비하면 증가한 것이나 여전히 눈에 띄게 부진한 상황이다. 이는 특히 시장을 이끌어 왔던 유럽 지역에서 신규 ESG 펀드 출시가 통계 자료 발표 이후 가장 적은 13개에 그쳤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지역의 경우에도 신규 ESG 펀드의 출시가 단 3개 그쳤기 때문이다. 이는 규제 강화와 불확실성 증가, 그린 워싱 우려, anti-ESG 심화로 신규 ESG 펀드 개발에 매우 신중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규 출시가 둔화된 것에 대해 모닝스타는 거의 모든 운용사가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ESG 펀드 상품 라인업을 구축하기 위해 서두른 2020년 이후 3년간의 높은 성장 이후 비로소 ESG 펀드의 개발 활동이 정상화 되었음을 반영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또한 2026년 2분기에 유럽에서는 64개의 ESG 펀드가 폐쇄되었는데, 1분기 56개 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닝스타에 따르면 이러한 펀드 폐쇄는 일차적으로는 ESG 펀드 시장을 둘러싼 어려움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나, 긴 안목으로 보면 ESG시장의 성숙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ESG 펀드 산업도 성장 과정에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면서 신규 자산을 유치하거나 좋은 수익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펀드는 점점 더 폐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처럼 더 나은 성과와 인기 있는 전략만 살아남는 것은 산업의 자연스러운 진화 현상으로 봐야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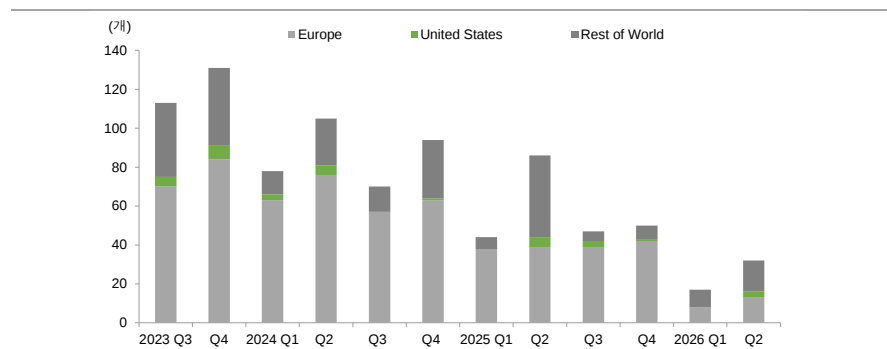
2026년 2분기 기준
미국 지역의 ESG 펀드
신규 출시 건수는
직전 분기 0개에서
이번 분기에 3개로 증가했
으나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부진한 모습

한편 2025년 1분기(0개), 2분기(5개), 3분기(3개), 4분기(1개)의 신규 출시를 보였던 미국 지역의 ESG 펀드 신규 출시 부진 현상은 2026년에도 이어져 1분기에는 하나도 신규 출시 되지 않았으며 2분기 3개가 신규 출시되며 상반기 기준 역대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2021년과 2022년에 출시된 연간 100개가 넘는 펀드와 비교하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이러한 신규 펀드 출시의 급격한 둔화는 ESG 둘러싼 정치적 반발이 심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ESG 투자 전략에 대한 미국 내 투자자 수요도 낮아졌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캐나다, 일본, 호주/뉴질랜드 지역의 경우 2026년 2분기 단 한 개도 신규 출시되지 않을 정도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지난 분기 9개의 신규 ESG 펀드가 출시되었던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경우 2026년 2분기에는 16개의 신규 ESG 펀드가 출시되었다.

도표 5. 분기 별 글로벌 ESG펀드 신규 출시 추이



자료: 모닝스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II. 새로이 재편되어 가는 ESG 시장

실물경제의 투자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ESG 시장

2026년 상반기 글로벌
ESG 시장의 회복은 과거
ESG 붐 때와는 달리 새로
이 재편되며 나타나는
구조적 성장임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글로벌 ESG 시장은 시장의 회복세는 '부활'이라는 표현 보다는 상품 구조와 투자대상이 새로이 '재편'되는 시장으로 판단된다. 지난 2025년은 ESG 투자 시장에는 가장 혹독한 해였다. 유럽 지역의 ESG 펀드는 집계가 시작된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기준으로 순유출(-620억 달러)을 기록했으며, 미국의 경우 반(反)ESG 정치 환경, 그린워싱 논란, 규제 불확실성 등의 정책 기조가 겹친 결과 순유출을 이어갔다. 이처럼 2025년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대규모 순유출을 보였으나 2026년 상반기에는 자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되며 순유입을 기록 중이다. 하지만, 회복의 내용은 과거 ESG 붐 때와는 다르다는 판단이다. 당사는 아래 세 가지 근거로 여러 도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ESG 시장의 성장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①자금 흐름의 바닥 통과
와 자산 규모의 구조적 확대

첫째 자금 흐름의 바닥 통과와 자산 규모의 구조적 확대이다.

글로벌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2025년 4분기 -264억 달러 → 2026년 1분기 +8억 달러 → 2026년 2분기 +37억 달러로 회복세가 이어졌다. 유럽은 2025년 3·4분기 대규모 유출 이후 2개 분기 연속 순유입을 유지했으며, 특히 14개 분기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던 미국 지역의 ESG펀드는 2026년 2분기 +30억 달러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유기성장률(OGR)이 -1.2%(2026년 1분기)에서 +0.8%로 전환되었다. 이에 자금 흐름이 바닥을 통과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글로벌 ESG 펀드 규모는 2018년 말 약 6,000억 달러에서 2026년 2분기 3.73조 달러로 약 6.2배 증가했으며, 올해 2분기 자산 증가분(+2,300억 달러)은 순유입(+37억 달러) 규모의 60배를 웃돌아, 이 증가분 대부분은 신규 자금의 유입보다 시장가격 상승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비중이 높은 ESG 포트폴리오가 시장 회복에 탄력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모건스탠리 지속가능투자연구소(Morgan Stanley Institute for Sustainable Investing)가 지난 9월 10일 발표한 'Sustainable Reality' 분석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글로벌 ESG 펀드의 성과는 4.9%로 일반 펀드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SG 관행이 우수한 기업의 주식이 시장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여 전체적으로 성과 개선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특히 ESG를 둘러싼 정치적 반발과 정책 리스크 등이 확대되어 있는 미국 지역 조차도 2026년 2분기 ESG 펀드 규모가 3,98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전분기 대비 +13%)를 기록했다.

②투자 저변의 질적 변화와 확대

ESG 투자의 주요 자산 유형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ESG 투자 전략은 전통적인 Active에서 Passive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Broad ESG에서 Targeted ESG로 이동

둘째, 투자 저변의 질적 변화와 확대를 들 수 있다.

ESG 투자의 주요 자산 유형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ESG 투자 전략은 전통적인 Active에서 Passive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Broad ESG전략에서 Targeted ESG전략으로 이동하고 있다. 유럽 지역의 ESG 펀드 중 패시브 전략의 펀드 비중은 2023년 1분기 28%에서 2026년 2분기 33%로 상승했으며, 유럽 지역의 패시브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2026년 1분기와 2분기가 각각 +240억 달러, +114억 달러로 저비용·규칙기반 베타 추종 ESG 투자 수요가 자금흐름을 떠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럽 지역의 액티브 전략의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2026년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48억, -78억 달러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자산군에서도 주식형 위주의 모습에서 채권형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투자자가 ESG를 '고성장 주식 테마'로만 보지 않고 ESG와 관련된 안정적 현금흐름과 신용을 제공하는 채권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유럽 지역의 ESG 채권형 펀드는 13개 분기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누적 규모는 약 1,500억 달러를 달성했다. 2026년 2분기 채권형은 +144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주식형은 -93억 달러로 지정학 불확실성 속 '안정성 + ESG' 수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기존과 달리 ESG 시장이 실물경제의 투자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 → ESG가 독립된 섹터라기보다 산업·에너지·인프라 투자 사이클에 편입되는 과정

무엇보다 과거에는 단순히 ESG 점수가 높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거나 청정 에너지 관련 사업을 보유한 기업과 같이 ESG의 관행이 좋은 회사에 투자했다면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ESG 투자영역은 전력망·전력 인프라, 에너지저장, 전기화·효율화, 저탄소 전력, 핵심광물·공급망, 전환금융, 물·기후적응, 인프라 private credit 등이다. 이 투자 주제들은 단순히 ESG 라벨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에너지안보, 산업정책, 노후 인프라 교체라는 실물경제의 투자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ESG가 독립된 섹터라기보다 산업·에너지·인프라 투자 사이클에 편입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IEA는 글로벌 전력수요가 2026~2030년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데이터센터와 산업 전기화가 수요 증가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중 데이터센터 전력소비는 2025년 약 485TWh에서 2030년 약 950TWh로 거의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AI 데이터센터 → 전력수요 → 발전 → 송전·배전망 → 저장 → 전력효율이라는 연쇄 투자수요를 만들고 있다. 특히 'ESG 기업'이라는 라벨이 붙여져 있는 전력망·저장·전력관리 산업에서 효율을 높이고 있는 기업들이 이러한 사이클의 경제적 수혜자가 되고 있다.

③제도·인프라 등의 신규 도입과 보완으로 신뢰도 상승 기대

셋째, 제도·인프라 등의 신규 도입과 보완으로 신뢰도가 상승이 기대되며 이로 인해 그린 워싱 우려 감소 등으로 이를 우려했던 기관의 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가운데 EU SFDR 개정(3개 상품 범주, 70% 기준), 일본 SSBJ 기준 법정화, 중국 400여 대형 상장사 첫 의무보고, 한국 2028년 ESG 법정공시 확정 등 '측정 가능한 ESG' 관련 인프라가 2026~2028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ESG 라벨 신뢰도 개선이 기대된다. 이는 그린 워싱 우려로 이탈했던 기관 자금의 재유입 조건 중 하나로 향후 제도가 운용되고 안정화가 되어 신뢰도가 상승한다면 과거 ESG 붐 때와 같이 기관의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Green-only 모델의 한계가 나타나 전환(Transition)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 금융의 영역으로 편입될 수도

한편 최근 일본과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Green-only 모델의 한계가 나타나 이에 전환(Transition)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전통적인 ESG 전략은 화석연료·고탄소 산업을 제외하고 이미 친환경적인 기업에 자금을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산업 전체의 탈탄소화에는 철강, 화학, 시멘트, 운송, 전력 등 고탄소 업종의 대규모 CAPEX가 필요한데 이들 기업을 모두 배제해 오히려 전환에 필요한 자본 공급을 줄이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 해 일본은 정부 주도로 전환채권을 발행해서 전환을 추진 중이다. 또한, 유럽의 경우 단순한 녹색 활동뿐 아니라 경제의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 금융으로 지속가능 정책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는 '현재 친환경인가'보다 '전환계획이 신뢰할 만하고 자본투입이 실제 감축으로 연결되는가'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단, 단순한 '전환 스토리'만으로는 부족하고, 명확한 감축목표·CAPEX·현금흐름·규제·기술경쟁력을 함께 평가해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융이 이를 지원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향후 전환 영역이 새롭게 지속가능 금융의 영역 안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ESG 시장의 투자 유니버스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국내 ESG 펀드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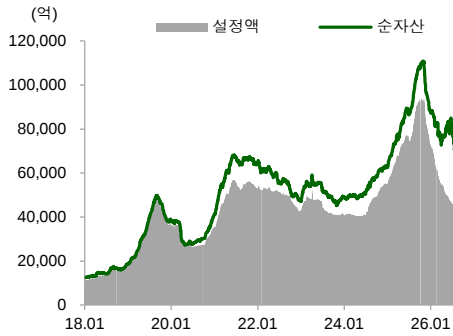
국내 ESG 펀드 시장은 2026년 2분기에도 ESG(채권)펀드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출되어 설정액이 9,114억 감소함

한편 국내 ESG 펀드 시장을 살펴보면, 2026년 2분기에도 ESG(채권)펀드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출되어 설정액이 1분기 1조 7,711억 감소에 이어 9,114억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반기 동안 고금리 영향으로 회사채 ESG 채권 발행 및 잔액이 크게 감소하는 부진한 모습을 보인 영향으로 ESG(채권) 펀드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반면 ESG(주식) 펀드의 경우 연초 국내 증시 강세 등의 영향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1분기에 순유입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고 이후 변동성이 확대되자 다시 감소세를 보여 2분기에는 결국 감소세로 마감했다. 한편 3분기인 7월 들어 국내 증시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조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유입이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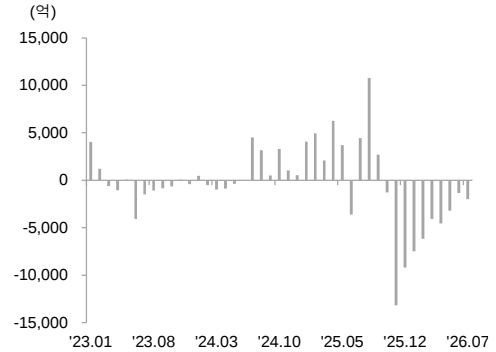
가해 올해 들어 설정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다. 또한 국내 ESG 펀드의 월별 자금 흐름 추이를 살펴보면 매월 순유출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도표 6. 국내 ESG 펀드 설정액 및 순자산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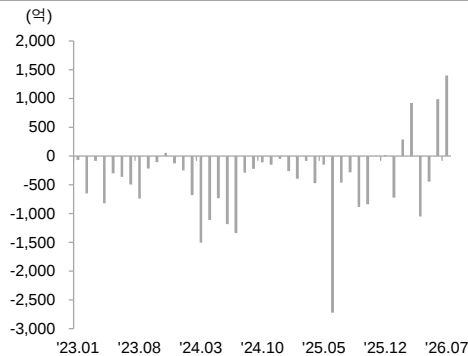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7. 국내 ESG 펀드 월별 자금 흐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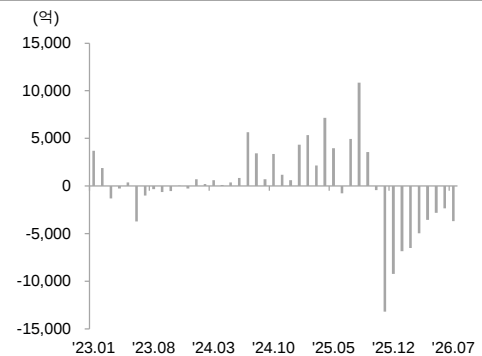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8. 국내 ESG(주식)펀드 월별 자금 흐름 추이



자료: 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9. 국내 ESG(채권) 펀드 월별 자금 흐름 추이



자료: 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기준을 달리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

ESG(주식)의 경우 1분기
국내 증시의 강세 영향으로
순유입, 2분기에는 이란 전
쟁과 변동성 확대 등으로
감소세를 보임

국내 ESG 시장은 채권시장의 부진 여파로 ESG(채권) 유형이 큰 폭으로 감소해 결국 전체 ESG 유형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주식) 펀드만 분리해서 살펴보면 연초 국내 증시 강세 등의 영향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1분기에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으며, 2분기에는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고 이후 변동성이 확대되자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3분기 들어 7월에는 국내 증시가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조정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유입되어 설정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미국 ESG 펀드는 14분기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됨 → AI발 에너지 수요 증가로 청정에너지, 전력망, 전환 인프라 등 녹색 인프라 펀드 등에 많은 자금 유입되었기 때문

대표적으로 GRID ETF로 2026년 2분기 31억 달러 유입되며 4분기 연속 순유입 기록

그런데 국내에도 이 GRID ETF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력설비나 전력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진 ETF가 다수 출시되어 운용 중

반면 앞서 살펴본 미국 시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심화된 anti-ESG에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아 올해 1분기까지 14분기 연속 순유출을 보이는 등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은 극심한 부진을 보였으나 올해 2분기 들어, 투자자들이 AI 및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 증가 기대 등으로 에너지 전환 인프라 및 관련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녹색 인프라 펀드 등에 많은 자금이 유입되어 3년반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되었다.

대표적으로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Smart Grid Infrastructure 펀드(GRID)는 전력망, 송전망 장비 및 에너지 관리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AI와 데이터 센터의 증가로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투자자들이 관심이 높아져 2026년 2분기에만 31억 달러의 자금이 순유입 되며 4분기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GRID는 Clean Edge에서 정의한 스마트 그리드 및 전력 에너지 인프라 부문에 속하는 글로벌 주식에 집중 투자하는 ETF이다. 이 ETF가 추종하는 지수는 매출의 50% 이상이 스마트 그리드 및 전력 에너지 인프라 부문에서 발생하는 순수 사업 기업(Pure Play) 또는 50% 미만이 해당 부문에서 발생하는 다각화된 사업 기업(Diversified)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된 투자 부문에는 전력망, 전기 계량기 및 장치, 네트워크, 에너지 저장 및 관리, 관련 소프트웨어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기업들의 ESG 평가 등급은 우수한 편이다.

그런데 국내에도 이 GRID ETF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력설비나 전력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진 ETF가 다음과 같이 다수 출시되어 운용 중이다. (가나다순 정렬)

1) 해외 주식 투자:

- 미래에셋TIGER글로벌AI전력인프라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삼성KODEX미국AI전력핵심인프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신한SOL미국AI전력인프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키움KIWOOM글로벌전력GRID인프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 국내 주식 투자:

- KBRISEAI전력인프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NH-Amundi HANARO전력설비투자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미래에셋TIGER코리아AI전력기기TOP3플러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삼성KODEXAI전력핵심설비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한국투자ACE코리아AI전력TOP1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이들 ETF는 국내에서 ESG 펀드로 분류되어 있지 않음 → 자산운용사들이 금융투자협회의 펀드 분류코드에 스스로 ESG펀드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위상 논란 등으로 자산운용사들이 규제에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

이중 키움KIWOOM글로벌전력GRID인프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는 GRID와 동일한 벤치마크 지수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N-Guide에서는 ESG 펀드로 유형 분류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해외 주식형으로 분류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ETF 모두 단순히 해외 주식형 또는 국내 주식형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을 뿐이다. 이는 Fn-Guide가 펀드의 유형 분류를 할 때 기준으로 활용하는 금융투자협회의 펀드 분류체계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융투자협회의 펀드 분류코드 체계는 전체 14단계로 이루어지는 데 그 중 9차 분류에 있는 펀드 특성 분류 코드 61번에 'ESG 펀드'가 있으며 Fn-Guide의 ESG 펀드 유형 분류는 이 금융투자협회 분류코드 값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Fn-Guide가 활용하고 있는 ESG 분류에 해당하는 9차 특성 분류코드에 자산운용사들이 스스로 ESG 펀드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서 이 9개 ETF가 단순히 국내 주식형 펀드 또는 해외 주식형 펀드로만 유형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내에서도 그런 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지난 2024년 2월 변경하면서 도입된 것으로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규제에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표 10. 금융투자협회 펀드 분류코드 체계(14단계)의 주요 분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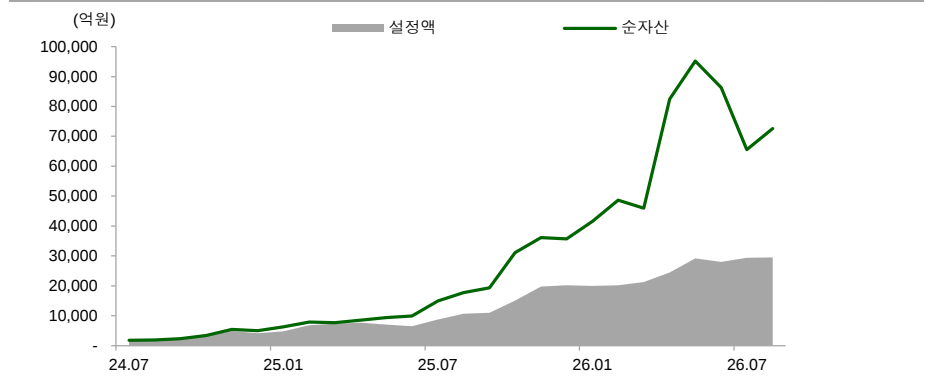
- * 1차: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구분
- * 2차: 집합투자기구 종류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금융 MMF 등)
- * 3차: 공·사모 및 국내외 투자 여부
- * 4차: 모펀드 및 자펀드 구분
- * 5차: 보수부과 방식(클래스)
- * 6차: 개방형 및 폐쇄형 여부
- * 7차: 판매 형태
- * 8차: 환매 방식 및 수수료
- * **9차: 특성 (비과세, ESG펀드 등)**
- * 10차: 투자 지역
- * 11차: 투자자산 (가치주, 성장주 등)
- * 12차: 주식 규모 및 채권 잔존 만기
- * 13차: 추종 지수
- * 14차: 위험 등급

자료: 모닝스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향후 운용 전략에 ESG 요소를 고려하여 운용을 하여 ESG 펀드로 재분류 된다면 미국 지역과 같이 국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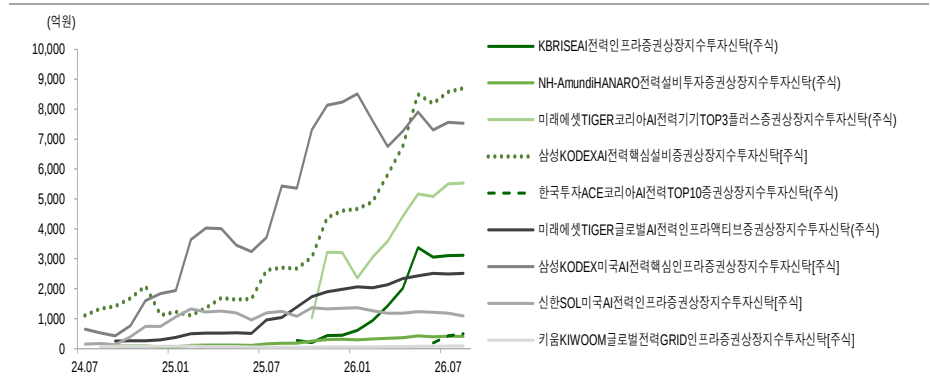
만약 여기 있는 9개 ETF가 향후 운용 전략에 ESG 요소를 고려하여 운용을 하고 ESG 펀드로 재분류 된다면 미국 지역과 같이 국내 ESG 펀드로의 자금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들어서 해당 ETF들로 2분기 기준으로는 2.6조 원, 8월말 기준 연간 3.2조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 되었기 때문이다. (도표 11,12 참조)

도표 11. GRID와 유사한 국내 상장 ETF들의 설정액 및 순자산 추이



자료: 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2. 각 ETF별 설정액 및 순자산 추이



자료: 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다만 국내 ETF들은 운용에 아직 ESG 요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서 ESG 점수는 GRID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

다만 이 ETF들을 보유종목을 투자금액 가중 방식으로 평가해서 ESG 수준을 점수화해서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Smart Grid Infrastructure Index Fund(GRID ETF)와 비교를 해보면 동일한 기초 지수를 추종하는 키움KIWOOM글로벌전력GRID인프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약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방식은 9개 ETF의 구성 종목 명세(2026-08-31기준 PDF)를 기반으로 최신 국내 한국ESG기준원(KCGS)의 등급, 해외 S&P Global ESG 스코어 정보 등을 결합하여 자산가중치 방식으로 산출해 보았다. 일단 GRID ETF의 ESG점수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부적으로 구성 종목의 차이가 미세하게 있지만 미국의 GRID ETF와 동일한 기초 지수를 추종하는 키움KIWOOM글로벌전력GRID인프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가 가장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GRID ETF와 지수 구조 자체가 거의 같아 글로벌 최상위 ESG 기업(Schneider Electric, ABB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TIGER글로벌AI전력인프라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삼성KODEX미국AI전력핵심인프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신한SOL미국AI전력인프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택[주식] 등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GRID와 주요 투자 업종의 구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GRID와 같이 전력망 기자재 관련 기업 보다 차세대 원자력(Oklo, NuScale power, Centrus, NANO Nuclear 등)과 데이터센터 전력·냉각(Vertiv, Bloom Energy, Comfort Systems 등) 관련 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안타깝게도 이 종목군은 아직까지 상장 이력이 짧고 상대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수준이 부족해 ESG 점수가 유럽계 ESG 선도 기업에 비해 낮다. 하지만 향후 ESG 요소를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해당 기업들의 업력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부분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내 주식형 ETF들이 많이 편입하고 있는 HD현대일렉트릭, LS ELECTRIC 등의 주요 국내 중전기 기업들의 ESG 등급이 글로벌 기준으로 평가시에는 중전기 제조업의 특성상 BBB 등급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 KCGS 기준으로는 우수 등급인 A~A+ 스코어를 확보하고 있어 국내 자본시장 내 ESG 펀드의 편입 종목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다.

국내 ESG 시장은 글로벌 시장에 비해 다소 둔화되어 있으나 올해부터 2030년 까지 다양한 제도의 도입 및 시행 등으로 인해 성장 모멘텀은 강화되고 있음 → 이에 국내 ESG 시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임

이처럼 국내 펀드 시장에서 일부 펀드들이 향후 ESG 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된다면 국내 ESG 시장의 성장이 크게 기대된다. 특히 국내에서도 ESG 공시 제도화가 되어 2028년(FY2027)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 2029년 5조원 → 2030년 2조원(잠정)으로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양질의 ESG 정보가 유입되면 ESG 시장이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가 10년 만에 전면 개정되어 2027년부터 적용 예정이다. 특히 올해 처음 진행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국민연금을 비롯해 대형 연기금의 위탁운용사 평가 및 자금배분에 반영될 예정으로 자산운용사의 ESG를 고려한 운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K-택소노미 개정(2026.1 적용, 전환부문 포함)과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도입(2026.2), 전환금융 취급을 위한 실무 모범규준(2026.8, 초안) 등이 연이어 마련되며 전환금융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의 기후금융 확대(2030년 80조원 목표) 발표 등으로 향후 국내 ESG 시장에 많은 자본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10월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세부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에 비록 국내 ESG 시장이 상반기 동안 다소 부진 했지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다.

Compliance Notice

이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